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기간 2019.3.11. ~ 6.10.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모바일 앱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Family 201904



‘2019년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혁신성장부문 최우수상 수상
-포커스 중에서-





‘2019년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혁신성장부문 최우수상 수상

회사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시상식에서 혁신성장부문 최우수상을 지난 2월 18일 수상했다.

올해 처음 제정된 ‘2019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한국공공정책학회와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공공정책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인물을 선정하는 뜻 깊은 상이다.

회사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과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기관 핵심기술을 통한 ▶국민 안전 및 공공성 강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혁신활동 ▶민간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 수요 창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엄호섭 경영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혁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혁신성과 창출 역량을 제고하여 회사가 처한 환경과 역할에 걸맞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체코 국영원자력 연구소와 MOU체결

- 양국 신규원전 및 가동원전분야
협력강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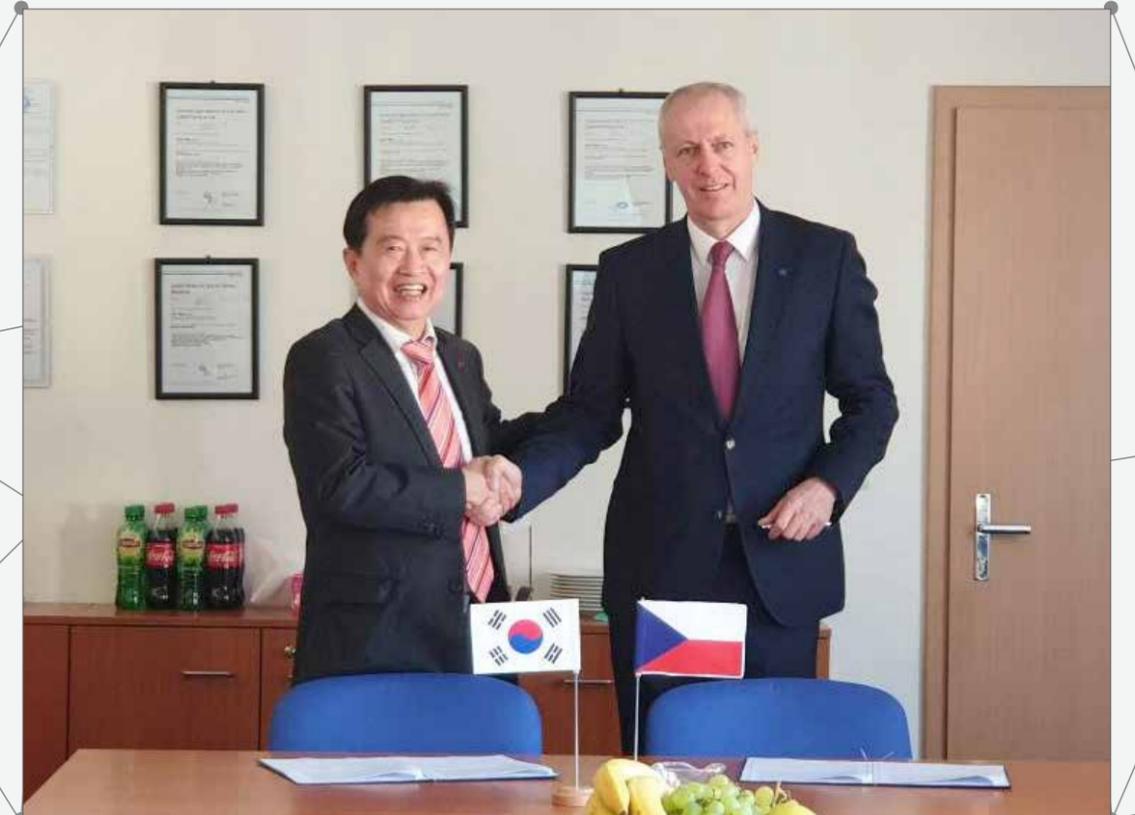
회사는 체코 신규원전 수주 활동의 일환으로 체코 국영 원자력연구소(UJV Rez)와 현지시각 2월 25일 MOU를 체결하였다.

회사는 이번 MOU를 통하여 원전 설계 및 연구분야에서

UJV Rez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신규원전 수주 시 현지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 회사는 UJV Rez와 공동으로 원전기술 교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수의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MOU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MOU에 따라 양사는 양국 가동원전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기술협력 및 공동 사업개발, 신규원전 관련 기술협력, 신형원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분야별 상호 인력과 기술교류를 진행한다.

이번 MOU를 통해 회사는 체코에서 가동중인 러시아 VVER(러시아형 가압수형 원자로) 원전에 대한 기술경험을 습득하고, UJV Rez는 한국 가동원전의 주요 설비교체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회사는 지속적인 해외원전 수출을 위하여 체코 현지 원자력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코엔스헥시콘사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양해각서 체결

- 정부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개발 협력



회사는 지난 3월 14일 (주) 코엔스헥시콘(CoensHexicon)사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개발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코엔스헥시콘사는 Oil & Gas 서비스 기업인 코엔스와 스웨덴의 부유식 해상풍

력 플랫폼 기업인 헥시콘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로 멀티터빈방식의 반잠수 부유식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울산 200MW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에 투자사로 참여할 계획으로 울산시와 MOU를 체결하여 협력 중이다. 회사는 이번 MOU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 목표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개발에 양사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공동 개발 ▶부유식 해상풍력분야 정부 R&D과제 공동 수행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정보 교류 및 기술자문 등의 업무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련 사업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각사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회사는 향후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의 건설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동안 축적된 설계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의 선진 부유체기술 보유업체와 협업을 통해 보다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MPR사와 기술협력 MOU 갱신

회사는 지난 3월 14일 미국 MPR사와 SMART 및 BNPP LTEA 관련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갱신하였다. 미국 MPR사는 1964년에 설립된 에너지, 국방, 안보, 환경, 생명공학 분야에서 기술 및 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컨설팅 전문회사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한 국내외 여러 회사에 다양한 분야의 원자력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MPR사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신환 원자로설계개발단장과 MPR사 Robert Carritte 사장 및 양사 기술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서명식과 함께 상호 현황 및 앞으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발표와 기술 토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양사는 2013년 처음 MOU를 체결하였으며, 혁신적 미래 경수로 핵심요소 기술개발 등의 기술자문에 참여하여 높은 수준의 기술지원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이번 MOU 갱신으로 양사는 강한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협력사와 청렴상생 실천대회 개최

– 협력사와 갑질근절 결의, 인권경영 및 청렴상생 다짐 –



회사는 지난 3월 8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협력사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한전기술'이란 모토 아래 협력사와 함께하는 '청렴상생 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청렴상생 실천대회'는 회사와 협력사 간 갑질근절, 인권경영, 청렴윤리, 정보보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전파·공유하고 공동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리 회사 경영진 및 84개 협력사 임직원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갑질근절 결의대회를 중심으로 갑질신고제도 안내, 갑질예방교육, 청렴·인권·갑질근절 공동결의, 계약제도 개선내용 설명등의 프로그램과 반부패 청렴특강, 부패 실태조사 결과보고, 기술/정보보안 의식향상 교육, 보안감사 점검 유의사항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특강에서 "한전기술은 2018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사에 대한 갑질근절은 물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를 주최한 오후섭 경영관리본부장은 "에너지 기술기업으로서 기술개발과 사업다각화를 통해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회사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부패방지 및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청렴 소통마당 개최

– 인권경영, 갑질근절, 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논의 –



회사는 청렴업무에 노력해온 부서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근 상임감사 주재 청렴 소통마당을 지난 1월 29일 17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인권경영과 갑질근절 실천을 통한 윤리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청렴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진행된 청렴 소통마당에서는 우리 회사가 반부패 청렴 우수기관으로 지속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제도개선과 프로그램 도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이전에는 반부패 청렴이나 사회적 책임부문에서 비교적 성과가 좋지 않았던 우리 회사가 근래에 각종 정부의 평가에서 청렴 우수공공기관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갑질근절이나 청렴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해석 표준설계절차서(SSAP) 개발

개발 배경

안전해석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기기 및 계통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사건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발전소 설계가 각 사건에 대해 정해진 방사선 선량 및 방사성 물질 방출량 제한치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이를 통하여 원자력발전소가 사고 시에도 공중의 보건이나 안전에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입지 않고 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안전해석을 수행하면서 해석담당자의 업무 경험에 따라 해석결과와 신뢰도 변화,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일관성 부재,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직원의 퇴직 등에 따른 기술전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품질 저하 등의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해외 원전수출 시 요구되는 기술지원을 위한 최신 기술의 종합적인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현안해결 및 경험자료 축적이 어려워질 수 있어 추후 기술력 축적 및 향상도의 지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안전해석 기술력 축적을 위한 안전해석 표준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유발될 수 있는 기술적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

고 기존의 기술력 유지와 공유를 통한 설계품질 제고 및 인허가 사안의 일관적인 해결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해석 표준설계절차서(Standard Safety Analysis Procedure, SSAP)를 개발하였다.

개발 절차

1단계 : 국내외 절차서 검토를 통한 문제점 도출

각 기술분야 마다 다양한 표준절차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의 절차서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거나 전반적으로 QA요건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아 절차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개발된 절차서의 개정이 미비하고 선연적인 설계절차서의 요건과 내용 때문에 절차서의 활용도가 극히 낮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형식적 절차서를 탈피하고 실용성과 편리성을 갖춘 절차서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2단계 : 절차서 작성요건 도출

표준설계절차서는 모든 설계정보와 기술적 근거, 발전소 호기별 차이점, 현안사항, 설계연계 인허가 경험 등이 수록되어 자기주도 교육이 가능한 고품질의 교육자료여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했다.

또한 사용자와 상관없이 동일한 품질 수준의 결과물 생산이 가능하며 설계관리절차서의 QA사항이나 최신의 규제요건, 설계기준 등이 포함하는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빠른 제공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해석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고 및 엔지니어의 노하우가 포함되는 안전해석 표준설계절차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절차서 작성 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하였다.

- ▶ 절차서 작성 : 명확한 조치 사항, 주의 사항 및 정보의 정확성 및 기술 근거 요구
- ▶ 품질보증 : 우리 회사 품질보증 절차에 따른 고품질의 설계

결과물 도출 요구

- ▶ 절차서 활용 : 최신의 자료로 유지되고 안전해석 교육자료로 활용성 요구

3단계 : 표준화된 절차서 양식 개발

모든 표준설계절차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해석그룹에서 작성하는 비상운전지침서(Emergency Operating Guidelines, EOG)의 문서 형태를 기준으로 template를 개발하였으며, 각 절차서는 상세 절차인 [Step], 주의사항인 [Note] 그리고 기술 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Information]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해당 업무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개발되었다. 그리고 상세한 컴퓨터 전산해석 입력 및 결과, 인허가 자료를 부록에 수록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단계 : 표준설계절차서 개발

안전해석그룹의 업무기능을 고려하여 그룹에서 수행 중인 업무를 7개 업무그룹으로 분류, 각 업무그룹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부 업무를 30개로 세분화하여 절차서를 개발하였다. 각 절차서는 업무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사건(사고)의 정의에서부터 분석 목표와 방법, 전산코드, 해석 수행 및 설계 결과물의 작성과 활용에 대한 안전해석 설계 프로세스를 모두 수록하여 작성하였다.

- ▶ 사건 정의 : 사건 정의 및 분류
- ▶ 분석 목적 : 분석 요건, 기술기준 및 허용기준
- ▶ 분석 방법 : 분석방법론, 가정 및 초기조건, 평가
- ▶ 전산코드 입력 작성 : 설계자료 검토, 전산코드 입력 작성
- ▶ 분석 수행 : 민감도분석, 최종 분석, 결과 확인, 요건 적합성 확인
- ▶ 분석결과물 처리 : 설계 연계 입력 문서 작성, 설계 연계 입력 제공
- ▶ 참고문헌



기대 효과

개발 완료된 안전해석 표준설계절차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히 가공되어 수출 고객을 위한 상품화도 가능하며, 내부적으로는 설계결과물 품질 향상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첫째, 상품화

안전해석 표준설계절차서는 안전해석 분석방법 및 노하우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해석 전산코드와 결합하여 통합적인 안전해석기술 상품화가 가능하다.

둘째, 품질 향상

안전해석 표준설계절차서는 안전해석 방법에 대한 기술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국내 안전해석 기술의 투명성과 고품질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수출형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안전해석기술 및 결과물의 신뢰도 증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전문교육

표준설계절차서는 안전해석에 대한 기술적 경험이 많은 직원들의 주도로 작성, 검토되어 그들의 기술력과 경험의 전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었으며 추후 국내외 건설, 가동원전의 안전해석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표준설계절차서 개발에서 목표했던 바와 같이 절차서의 존재 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기 때문에 추후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기술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적용 현황 및 향후 계획

개발된 표준설계절차서는 활용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부서 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절차서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표준설계절차서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설계입력과 생산과정, 해석을 위한 계산서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산서에 준하는 높은 보안 등급을 적용하여 원자로설계개발단에서 운영 중인 계산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E&C

& And

좁은 골목길에
유모차가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쓰레기가 널린 공터에서
여인은 연신 무언가를 찾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빛바랜 유모차,
삶이란 게 고단한 것이지,
빈병과 종이상자를 떠올리는 순간
예상은 빛나가고 맙니다.
유모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었고
여인은 민들레 꽃씨가 달린
대궁 한 움큼을 쥐고 돌아서 나옵니다.
그중 하나를 아이에게 건넵니다.
'후우~ 붙어봐~!'
날개 달린 씨앗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말없는 식물이 그 어떤 우화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민들레를 생각합니다.
늘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겸손.
짓밟히면서도 기죽지 않는 자신감과
비바람이 강할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생명력.
길고양이가 숨어든 아파트 화단에
샛노란 민들레 가족이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엄연한 이름이 있지만
원하지 않는 식물은 잡초로 분류됩니다.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꽃피고 열매 맺는 일 순탄하기만 할까요.



자전거 라이딩 국토완주 그랜드슬램 달성!

자전거회는 지난해 9월 29일에서 10월 1일까지 3일간 동해안자전거길 라이딩을 다녀왔다. 동해안 라이딩은 이미 지난 2014년도에 통일전망대에서 부산까지 완주한 바 있지만 이번 라이딩은 지난해 완공된 동해안 인증센터를 완주하여 종주인증을 받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동해안자전거길 완주인증은 필자 개인적으로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하여 고대하던 국토완주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종주를 시작한 초기에는 2년 내에 국토완주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직장인이다 보니 한 번에 며칠씩 소요되는 라이딩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동안 국토종주와 4대강 종주인증을 마친 후에도 계속되는 인증센터의 추가로 인증 받아야 할 구간이 늘어나면서 계획했던 것 보다 오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랜드슬램 인증은 국토종주, 4대강종주, 오천자전거길, 제주환상자전거길, 동해안종주까지 모든 구간을 완주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와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전거 동호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도전하고 싶은 완주 코스이다.



국토종주길은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출발하여 새재구간을 거쳐 부산 낙동강 하구둑까지이며, 4대강종주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모두 완주하는 구간이다. 오천자전거길은 이화령 초입의 행촌교차로를 출발하여 세종시 합강공원까지 달리는 구간이다. 제주환상자전거길은 제주 해안을 따라 한 바퀴 완주하는 코스이고 동해안종주길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하여 임원항까지의 강원 구간과 임원항에서 영덕해맞이공원에 이르는 경북 구간을 완주하는 구간이다.

자전거길 종주 인증 방법은 인증센터에서 인증수첩을 구입하여 각 코스를 자전거로 라이딩하면서 곳곳에 설치된 무인 인증센터를 들러 스탬프를 수첩에 모두 찍은 후 유인인증센터를 방문하여 확인 후 종주 완료 인증을 받으면 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서 자전거행복나눔 앱을 이용한 인증도 가능하다.

가자! 대전으로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다음날 통일전망대에서 라이딩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김천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가야 한다. 이번 동해안 라이딩에는 필자(회장)를 포함해 박기신 부장, 장지웅 부장(총무), 문홍일 과장 총 4명이 함께하였다.



회사가 김천으로 이전하면서 예전보다 원거리 라이딩이 힘들어졌다. 용인에 있을 때는 지하철도 가능하고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전국 어디든지 가기가 용이하였지만 이곳 김천에서는 터미널까지 자전거로 이용해야 하고 동대구터미널을 이용하지 않으면 다양한 지역을 가기가 사실상 힘들다. 또한 배차도 그리 많지 않아 시간을 잘 계산하여야 한다. 김천에서 직접 강원도 고성으로 가는 차편이 없어 우리는 자전거로 김천터미널까지 이동하여 시외버스를 타고 동서울터미널로 간 후 대진발 막차를 타기로 했다. 문홍일 과장은 회사일로 다음날 오전에 강원도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머지 셋은 오전 근무를 마친 후 휴가를 이용하여 오후 2시에 동서울로 출발하는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김천터미널로 이동하였다. 회사에서 김천터미널까지는 30분 정도면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하였다.

김천터미널을 출발한 버스는 3시간이 넘게 달려 6시가 넘어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인근 식당에 들러 저녁을 해결하고 편의점을 방문해 숙소에서 해결할 간단한 조식거리를 산 후 터미널에 도착해 보니 우리 외에도 자전거를 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라이더들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 뒤에도 몇 명이 추가되어 대충 실어야 할 자전거가 10대는 넘어 보인다. 앞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무척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모두들 동해안 라이딩이 처음인 듯 보였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이 많은 자전거를 다 실을 수 없으니 도착한 순서로 타자”고 까지 한다. 내가 “모두 실을 수 있다”고 말하니 어떤 이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반박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버스가 막차이고 내일 첫차도 동일한 상황일 것이니 서로 도와 실어볼 것”을 제안하고, 오늘보다 더 많은 자전거를 실었던 경험을 이야기 해 주면서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 따라서 하시면 실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나는 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앞바퀴를 탈거하고 안장을 최대한 내리거나 빼고 준비하라고 요청한 후 차가 도착하자마자 김칸에 자전거를 누이지 않고 세워서 신는 것을 보여주며 동일하게 차곡차곡 신도록 하였다. 자기 생각만 하고 대충 신고 자리로 가신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모두의 협조로 자전거 전부를 신는데 성공하였다. 차에 올라타니 사람들이 오늘 하나 배웠다며 이렇게도 자전거를 실을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해 한다. 동서울을 출발한 버스는 저녁 늦게 대전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자전거 정비 후 모두들에게 즐거운 라이딩 하시라고 인사한 후 사전에 예약해 놓은 민박집 숙소로 향했다. 다음날 바로 동해안 라이딩이 용이하도록 통일전망대 부근에 숙소를 잡았다.

통일전망대에서 동해안 라이딩을 시작하다

숙소가 해안 바로 옆에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출을 감상하고 준비해 간 음식으로 간단히 조식을 해결한 후 통일전망대를 시작으로 동해안 인증 라이딩을 시작하였다. 강원도 고성은 필자가 예전에 군대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대진을 지날 때에는 어쩌다 몰래 집으로 전화하곤 했던 공중전화 부스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며 잠깐 떠오르는 추억에 웃음짓기도 했다.



통일전망대에서 인증 도장을 찍은 우리들은 화진포를 지나 북천철교 인증센터에서 문홍일 과장과 합류한 후 다음 인증센터인 봉포해변으로 향하였다. 봉포해변 인증센터에 도착하니 벌써 점심때가 다 되어 간다. 우리는 숙소로 가는 길에 점심을 하기로 하고 계속 라이딩을 이어 나갔다. 영금정에서 인증 후에 근처 식당에서 물회로 점심을 하였다. 갈증 후에 먹어서 인지 무척 맛이 좋았다. 점심 후 속초 대표항 근처를 지나려니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중간 중간 길로 나오는 차들과 마주칠 때가 많았는데 이러한 상황이 경미한 사고를 만들고야 말았다. 박기신 부장이 좌회전 신호에 갑자기 나오는 차와 마주하면서 급제동으로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속초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는 하였으나 라이딩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박기신 부장은 버스를 타고 귀가하기로 하고 자전거는 터미널 근처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나중에 찾아가기로 했다. 매번 도로를 라이딩 하거나 라이딩 중간에 느끼는 거지만 위험한 순간들을 간혹 마주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곤 한다. 나도 이번 라이딩 중 잠깐 방심하여 도로 반대편 차선의 차와 부딪힐 뻔하는 아찔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였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라이딩에서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꼭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속초를 빠져나와서는 차량도 뜸해지고 자전거길도 별도로 잘되어 있어 라이딩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속초 구간의 영성한 자전거길만 아니었으면 4명 모두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쉬움이 남는다.

주문진 전 지경공원 인증센터에 도착하니 벌써 날이 많이 어두워져 버렸다. 원래 계획은 첫날 경포에서 숙박하는 것이었지만 서둘러 주문진으로 달려 주문진 시장의 한 가게에서 생선구이로 늦은 저녁을 먹고 우리는 근처 찜질방에서 하루 라이딩을 마감하였다. 오늘 달린 거리를 보니 대략 110km 정도였다.



주문진에서 임원항까지 달리다

오늘은 주문진을 떠나 임원항까지 달리는 날이다. 찜질방을 나와 경포해수욕장을 향해 달렸다. 경포해수욕장에서 인증도장과 사진을 찍은 우리는 근처의 초당 순두부 마을로 가서 아침을 먹고 다음 목적지인 정동진으로 향했다.

경포를 지나 정동진으로 가는 자전거길은 해안이 아닌 산으로 난 길을 따라 내륙으로 돌아서 괘방산 등산로 입구까지 우회하도록 되어 있어 한동안 당황스러웠다. 해안으로부터 멀어져 우회하다 보니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닌지 잠시 의심하기도 하였다. 정동진역에서 역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다시 달려 모래시계 공원에 도착한 우리는 인증 후 사진도 찍고 커피도 한 잔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여기를 지나면 경사





가 높은 언덕을 지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공원을 지나 썬크루즈가 있는 언덕을 넘어가는 길은 생각대로 힘들었다. 그래도 기어를 저속에 놓고 차근차근 페달링 하다 보니 어느새 고개를 넘어간다. 망상해변으로 가는 길은 자전거 도로도 보이지 않고 차로도 정비 중이라 차선이 없어 주의하여 달려야 했다. 망상해변 인증센터 를 지나고 추암촛대바위로 이동하여 촛대바위를 배경으로 사진을 한 컷 찍고 인증센터를 찾으니 심한 경사로 언덕에 위치해 있다. 피를 부려(?) 자전거를 끌고 올라서니 바다가 보이는 바다가 무척 아름답고 때마침 바람이 불어 시원하다. 촛대바위를 지나 다음 한재공원 인증센터로 가는 길은 해안을 따라 예전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꽤 긴 고갯길을 올라가야 한다. 정상부근에 인증센터가 있으며 인증센터를 지나면 한동안 내리막이 시작되고 멀리 보이는 해안 경치가 무척 아름답다. 특히 공촌해수욕장으로 가는 해안 내리막길에서 바라보는 해변은 마치 외국 해안을 보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만큼 아름다웠다. 이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진 한 컷 찍고 라이딩을 이어갔다.

오늘의 목적지인 임원항에 도착하니 5시가 조금 넘어간다. 이전 동해안 라이딩 때는 중간에 해신당공원을 잠시 들렸었지만 이번에는 패스하였다니 생각보다는 좀 일찍 도착한 것 같다. 좀 더 라이딩을 이어갈지 고민하다가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라이딩을 끝내고 임원항의 한식당에서 삼겹살로 몸보신을 하고 근처 민박집에서 오늘의 라이딩을 마감하였다. 오늘의 달린 거리는 대략 120km가 넘는 것 같다.

영덕해맞이공원에서 드디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다

오늘은 동해안 인증을 위한 종주의 마지막 날이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잠시 최근 완공된 수로부인공원에 들러 사진을 찍은 후 울진은어다리 인증센터로 향하였다. 울진은어다리에 도착하니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에 다리가 있고 그 다리 난간에 큰 은어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번 동해안 라이딩에 물고기 모양의 조형물을 두 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곳 은어다리과 고래불해변에 있는 고래모양의 조형물이다. 은어다리에서 망향휴게소를 향하여 달리는 중간에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다리 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그중 큰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사람도 목격할 수 있었는데 다리에서 수면까지 꽤 거리가 되어서 그런지 좀 아찔해 보이기는 했다.

망향휴게소로 가는 길에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다. 특히 바람의 방향이 반대여서 속도를 낼 수가 없었다. 입도 마르고 힘도 많이 들었다. 오늘은 종주를 마치고 가능한 김천까지 귀가하려 마음 먹었기에 서둘러야만 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중 제일 젊은 피인 문홍일 과장을 선두로 세웠다. “무조건 쫓아 갈 테니 빨리 빼” 라고 주문하였다. 이날은 바람도 많이 불고, 언덕도 몇 번씩 넘어야 해서 무척 힘들었지만 선두가 서두른 덕분에 일정을 당길 수 있었다.

망향휴게소에서 월송정까지 가는 길에 울진대계 조형물이 있었지만 패스하고 월송정까지 서둘러 달렸다. 월송정 인증센터에 도착하니 배도 많이 고프고 지쳐서 근처의 조그마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직접 만든 도토리묵이라며 주셨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지 지금까지 먹은 도토리묵 중에 제일 맛있었다. 그 식당은 묵각으로 종을 글귀를 새겨넣은 것이 많았는데, 특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글귀와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는 줄 아는가?’라는 글귀가 마음에 들었다. 나중에 카톡 프로필 글귀로 써야지 하고 메모를 하였다. 점심 식사 후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내 자전거에 바람이 빠지기 시작했다. 펑크가 난 것이다. “하필 이렇게 바쁠 때 펑크가 날게 무어람!” 펑크가 나는 부분을 확인하고 서둘러 정비 툴을 꺼내어 펑크를 때우려니 아뿔싸! 오래 사용하지 않아 접착제가 굳어 버렸다. 예비용 튜브로 바꿀까 하다가 마침 문홍일 과장이 스티커형 패치를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해결하고 서둘러 라이딩을 이어갔다.



대한민국 국토완주 그랜드슬램 달성을 마무리하며...

이번 라이딩은 동해안 종주 인증도 있지만, 나에게도 국토완주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기회였기에 감회가 새로웠다. 모두들 힘들었지만 함께 해준 사우들에게 "정말 고생 많으셨노라 덕분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이 글을 빌어 전하고 싶다. 그랜드슬램 인증은 며칠 후 구미보유인 인증센터 방문하여 받았으며 인증서와 메달은 나중에 집으로 배달되었다. 인증번호를 보니 지금까지 1만 2천 명 정도가 그랜드슬램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기 자전거회는 하루 정도의 근교 라이딩 외에도 국토종주(인천-부산), 4대강종주(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속초-미시령-양평 종주, 섬진강종주, 오천종주, 동해안(고성-부산), 남해안(목포-부산), 제주일주, 여수일주, 용인사육-김천사육종주 등 우리나라 이곳저곳 많은 곳을 자전거로 다녀왔다. 그 동안의 많은 장거리 라이딩을 하면서 느낀 점은 철저한 준비, 협동심, 목표 달성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라이딩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C**



피 같은 시간을 펑크로 인해 소비하는 바람에 우리는 더욱 라이딩 속도를 높여 나갔다. 내 자전거가 이전 보다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아 힘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일행들을 따라 이를 악물고 달렸다. 나중에 휴식하면서 안 사실이지만 림브레이크를 결합하면서 미처 마무리를 잊어 버려 한쪽의 패드가 림에 닿으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었다. 달려오면서 힘들었던 이유를 알고 나니 얼마나 억울하던지 ㅋ. 덕분에 좀 전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달려(?) 고래불해수욕장에 도착하니 고래 모양의 철골 조형물이 우리를 맞이한다. 인증과 사진을 찍고 오늘의 마지막 인증센터인 영덕해맞이공원으로 향한다. 오늘 늦게라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쉬지도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을 달려 드디어 오늘 최종 목적지인 해맞이공원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서로 부둥켜 안으며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인증사진으로 동해안 종주를 마감하였다.

가자! 김천으로

이제는 집까지 가는 길만 남았다. 대전에 사는 문홍일 과장은 기차를 타기 위해 헤어지고 장지웅 부장과 나는 동대구로 가기 위해 영덕시외버스터미널로 갔다. 영덕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10km를 더 가야 한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심 없이 전력 질주하여 달려와서 그런지 무척 힘이 들고 어지럽기까지 하다. 밥심이 떨어진 것이다. 힘들게 터미널에 도착하여 바로 동대구로 출발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서둘러 라면으로 간단히 저녁을 때우고 차에 올랐다. 여기저기 둘러 가다 보니 10시가 넘어 동대구터미널에 도착했다. 이 시간에 김천혁신도시까지 갈 방법은 KTX 외에는 없다. KTX에 MTB를 싣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을 우리도 알지만 우리는 바퀴를 빼고 김천구미역으로 가는 마지막 KTX에 올라 탔다. 자전거는 한쪽으로 세워 사람들이 통로를 다니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집에 도착하니 12시가 다 되어 간다. 함께 해준 사우들의 협동과 격려 덕에 130km가 넘는 거리를 달리고도 이렇게 당일 귀가하여 내일 종일 쉴 수 있게 되었다.



C ommunication

신혼집에 초대를 받았다.
예전엔 집들이라는 이름으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했지만
요즘은 추세에 따라 노골적으로 선포를 한다.
식사는 모처의 식당에서 하고
집에서는 커피와 과일만 준비 하겠노라고.

선물은 마음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품목 정하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때마침 그림을 봐 든 게 있어 걱정을 덜었다.
비록 사진을 액자에 넣은 것이지만
명색이 '명화'라는 이름답게 제법 괜찮아 보였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이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금속 세공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영향으로 황금의 화가로 불릴 만큼
그림에 금칠을 많이 사용한 게 특징이다.

클림트가 사랑하는 연인 에밀리를
꼭 끌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을 둘러싼 황금빛 천에는
여러 가지 문양이 잔뜩 그려져 있다.
남자의 옷에는 네모난 무늬가,
여자 옷에는 동그란 무늬들이 가득하다.
몸은 화려한 장식에 묻혀 보이질 않고
얼굴과 손 그리고 여자의 발만 나와 있다.
몽환적인 색채만으로도 사랑이 물씬 느껴진다.
그림이 묻는다.
당신도 이런 시절이 있었느냐고—.

봄 산, 숲의 마법이 풀리다

남도에서 시작된 봄이 내륙의 깊은 골짜기 스미는 사월, 겨우내 황량했던 산과 숲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거무튀튀한 숲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 색이 번진다. 연두에서 진홍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스펙트럼. 봄 산에서는 오르막이 힘들지 않다. 봄 산 중에서도 특정 꽃들이 군락을 이루어 명성이 자자한 산들이 있다. 울긋불긋 철쭉이 피는 황매산, 바래봉, 소백산, 덕유산, 진달래가 피는 영취산, 고려산, 수달래가 피는 주왕산 등이다. 철쭉이나 진달래가 군락을 이루는 산봉 풍광은 자연이 인간에게 보여 주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이다. 화사한 사월의 봄별을 맞으며 천상의 화원으로 떠나 본다.





02



03



05



04

산봉에 펼쳐진 철쭉바다 - 황매산

소백산, 지리산, 배봉산과 함께 3대 철쭉 명산으로 불리는 황매산은 경상남도 합천과 거창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해발 높이는 1,108m로 영남의 산 중에서도 높은 고봉이다. 해발 700~900m의 평평한 분지 위에 높이 약 300m의 뭉툭한 봉우리를 얹어 놓은 듯한 모습이다. 합천의 진산이지만 오래도록 황매산은 등산객들에게 유명한 산은 아니었다.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런 연유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잘 간직해 왔다.

황매산의 주 봉우리는 크게 하봉·중봉·상봉으로 나뉜다. 삼라만상을 전시해 놓은 듯한 모산재(767m)의 바위산이 절경이며 4월 말 북서쪽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 황매평전의 철쭉 군락은 봄을 대표하는 볼거리다. 황매평전에는 원래 목장지대가 자리하고 있던 평원으로 구릉진 초원 가득 진홍의 철쭉이 피면 말 그대로 천상의 화원으로 변모한다. 황매산을 오르는 길은 합천이나 산청, 거창의 여러 곳에서 오를 수 있다. 황매산 등산로 중 가장 많이 오르는 주능선은 영암사에서 모산재를 넘어 주능선으로 오르는 길이다. 코스가 길고 산행 시간도 5시간 이상 걸리지만, 모산재를 비롯해 황매산의 비경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코스다. 철쭉군락지만 감상하고 싶을 땐 황매산 오토캠핑장이나 산청 쪽의 영화주제공원에서 오르면 1시간 남짓 걸린다. 다만 철쭉이 피는 시기에는 주차장이 일찍 만석이 되므로 이른 새벽시간이나 평일 아침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철쭉이 피는 시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다.

바다와 맞닿은 진달래산 - 영취산

영취산은 미항 여수의 북동쪽에 자리한 해발 510m 높이의 산이다. 공단지역인 여수국가산업단지 바로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30~40년생 진달래가

큰 군락을 이룬 것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3대 진달래 산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1993년부터 해마다 4월 첫째 주, 진달래축제와 함께 산신제가 열린다. 영취산의 진달래는 일반 진달래와 달리 키가 조금 작고 군락을 이루는 것이 특징인데, 중턱부터 산봉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최고의 군락지는 450m봉 일대와 450m봉 지나 작은 바위봉우리 부근, 정상 아래, 진레봉 부근이며 시루봉 인근의 봉우재군락지, 골망치군락지도 산행코스에 따라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일반적인 꽃철 산행코스는 축제가 열리는 돌고개 행사장에서 완만한 돌레길을 따라 골망치, 가마봉을 거쳐 진레봉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며, 정상군락지에서 돌고개 행사장으로 바로 내려가면 된다. 영취산에는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 흥국사가 있는데, 문화 유적 답사를 겸한다면 봉우재를 거쳐 흥국사로 내려오는 것도 좋다. 돌고개 행사장에서 출발하면 진달래군락지, 영취산 정상, 봉우재를 거쳐 흥국사로 내려오는데 3시간 가량 걸린다. 산봉에서는 여천공단과 광양만 풍광이 시원스레 펼쳐지는데 지천으로 분홍색 진달래가 핀다면 그 풍미가 이루 말할 나위 없이 좋다. 올해의 진달래 축제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리는데, 축제기간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니 축제기간을 살짝 피해가는 것도 자연을 감상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낙조와 함께 꽃물 드는 섬산 - 고려산

고려산은 강화도에 자리하고 있다. 강화의 산들은 섬의 풍광과 어우러진 낙조 감상포인트가 많은데 고려산도 그중 하나이다. 산행의 초입부인 낙조봉에서 보이는 석양은 강화팔경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려산의 옛 명칭은 오련산이다. 416년 중국 동진의 천축조사가 이 산에 올라 다섯 색깔의 연꽃이 피는 오련지를 발견했는데, 이 연꽃들이 하늘에 날려 꽃잎이 떨어진 곳에 적련사와 백련사, 청령사, 황련사, 흑련사를 각각 세웠다고 한다. 적련사

01 이른 아침 시간대나 노을 무렵이 감상하기 좋다 02 신생의 연두색 잎으로부터 싱그러움이 느껴진다 03 백봉산 오르는 숲길에도 벚꽃이 피었다 04 산사의 운치가 느껴지는 흥국사의 전각과 풍경 05 봄이 오는 숲



06



08

는 지금의 적석사다. 절집은 남아 있으며 지금은 연꽃 대신 진달래산으로 유명하다. 4월 중순 고려산의 능선자락 북사면을 따라 약 1km 구간으로 진달래가 핀다. 넓은 면적에 잡목 하나 없이 진달래만으로 화원을 이루는데, 노을이 물들거나 4월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산행은 백련사로부터 시작된다. 군락지까지는 30분 가량 오르면 되는데, 길이 제법 가파르다. 능선까지만 오르면 발품이 편한 나무데크 길이 깔려져 있어 산책하듯 걸으면 된다. 데크길 끝 전망대에 서면 산자락을 가득 덮은 진달래와 함께 강화도와 한강, 임진강을 아우르는 풍경이 꽤나 시원스럽다. 축제기간에는 사람도 많고 길은 좁아 조금 번잡스러울 수 있다. 역시 축제 기간을 살짝 비켜가거나 느즈막한 오후 시간에 오르는 것도 좋을 듯싶다. 낙조가 스민 진달래는 더 붉고, 감흥은 더 깊다. 산행 시간은 한 시간 정도 걸린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정상부에서 4km가량 이어지는 완만한 능선길을 따라 낙조봉을 거쳐 적석사로 내려오는 것도 좋다.

고려산 진달래축제 4월 13일 ~ 21일

숲에 스미는 벚꽃잎 - 백봉산

제천 청풍호 자드락길 6코스의 청풍호 전망대가 자리한



07



09

산은 백봉산이다. 나지막한 산이지만 청풍호를 통틀어 조망이 제일 좋은 곳이다. 전망대에 오르면 북쪽으로는 남한강 물길과 금수산, 동쪽으로는 소백산과 옥순봉, 구담봉, 등지봉 같은 잘생긴 바위산들이 강의 좌우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고 남쪽으로는 월악산 영봉과 백두대간의 능선이 유장하게 펼쳐져 있다. 자드락길 6코스의 이름은 괴곡성벽길이다.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성벽은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삼국시대 남한강을 둘러싸고 영토분쟁이 심했는데, 이때 쌓은 산성이 없어지고 이름만 남았다는 설과 산능선이 자연성벽 역할을 하였다는 설이다. 전망대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마치 성벽처럼 길게 늘어진 능선을 마주할 수 있다. 자연성벽이라면 필시 저 능선이었을 것이다. 봄에 이 능선을 바라보면 자연의 오묘함을 만날 수 있다. 벽 같은 능선의 안쪽에 산빛나무들이 군데군데 자라고 있는데, 4월 개화가 시작되면 마치 한지에 물감을 찍어놓은 듯 한편의 화사한 수채화를 보는 것 같다. 막 올라온 연두빛과 연분홍의 벚꽃잎이 곱고 아름답다. 백봉산 청풍호 전망대 오르는 길은 자드락길을 따라 옥순대교에서 한 시간 가량 걸어 오르는 코스가 있고, 차량을 이용해 다불리마을을 거쳐 백봉 산마루 주막까지 올라 십분가량 걸어서 오르는 코스가 있다. 단 자드락이란 말이 산비탈에 난 좁은 길이란 뜻처럼 길이 좁고 가파를 수 있으니 안전운행이 필수다. 3월 청풍호 관광케이블카의 운행이 시작되어 인근의 비봉산 관람은 보너스가 되겠다. 청풍호 청풍면 일대에서는 벚꽃축제가 열린다. E&C

06 영취산 둘레길 주변으로 펼쳐진 영취산의 진달래 07 백봉산 청풍호 전망대 앞 능선에 벚꽃 물이 들고 있다 08 영취산 진달래군락의 일출 풍경을 담은 사진작가들 09 철쭉제가 펼쳐진 황매산



이순신의 죽음

일기분류 : 전쟁일기
 출 전 : 고대일록(孤臺日錄)
 시 기 : 1598년 11월 19일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인 물 : 이순신, 심안도, 가토 기요마사, 진린
 주 제 : 조선군의 승리
 장 소 : 전라도

◆ 이순신의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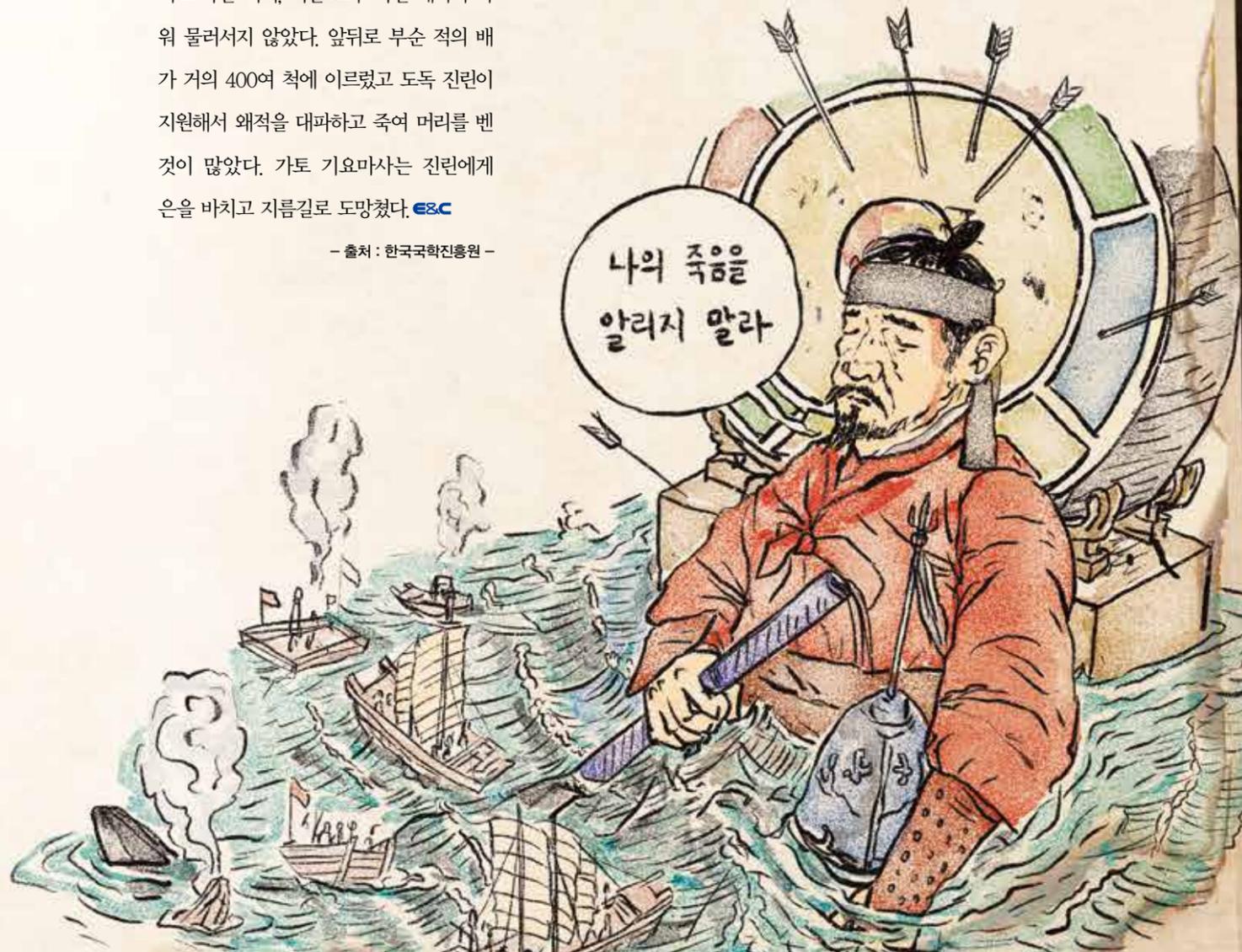
1598년 8월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일본은 그 사실을 비밀에 붙인 채, 8월 28일과 9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철군명령을 내렸다. 이때 왜교성에 머물면서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져 있던 고니시 군은 사천 남쪽 창선도에 집결하여 구원을 요청하였다. 일본군의 이러한 움직임에 간파한 이순신은 우선적으로 그들의 구원부대를 격멸하기 위해 노랑 앞바다에서 일본군 구원부대가 지나갈 길목을 차단하였다. 명의 진린 군은 죽도 부근에 진을 치고 이순신 수군은 노랑 남쪽 남해도의 관음포에서 진을 친 다음, 일본군 함대를 기다렸다. 11월 18일 밤, 고니시 군의 구원요청을 받은 시마즈 군과 소오 군은 5백여 척의 함대와 병력 만 이천여 명을 편성하여 시마즈의 지휘 아래 광양만으로 출동하였다. 11월 19일 새벽 조선과 명 연합함대는 노랑 앞바다에 집결하여 일본군 함대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에 이순신 함대가 각종 화포의 사격을 집중하여 일본군함을 닥치는 대로 격침시켜 기선을 잡았다.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군의 전함은 대부분의 선수를 돌려 관음포 방면으로 퇴각하였으며, 일부는 배를 버리고 남해도 서북해안으로 상륙하여 달아나 버렸다. 이 전투를 지휘하던 통제사 이순신은 전투가 한창 치열하게 전개되던 결정적인 순간에 일본군의 유탄에 맞아 최후를 마쳤다. 조선 수군은 "전투가 바야흐로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그의 유언에 따라 그 사실을 진중에 알리지 않고 끝까지 전투를 계속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시마즈 군은 이 노랑해전에서 이백여 척의 대소 전함과 오백여 명의 병력을 상실하고 창선도로 패주하였다. 한편, 왜교성의 고니시 군은 조선과 명 연합함대가 노랑에서 적진을 벌이고 있는 틈을 타서 11월 20일 새벽에 왜교성을 빠져나가 거제도도 달아나 버렸다. 일본군은 고니시 군이 부산에 합류하자, 11월 24일부터 각 부대 단위로 철군을 개시하였다. 이들 일본군은 쓰시마와 이키를 거쳐 12월 중에 하카다에 상륙하여 철군을 완료하였다. 그리하여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전후 7년 동안 전개된 임진왜란은 종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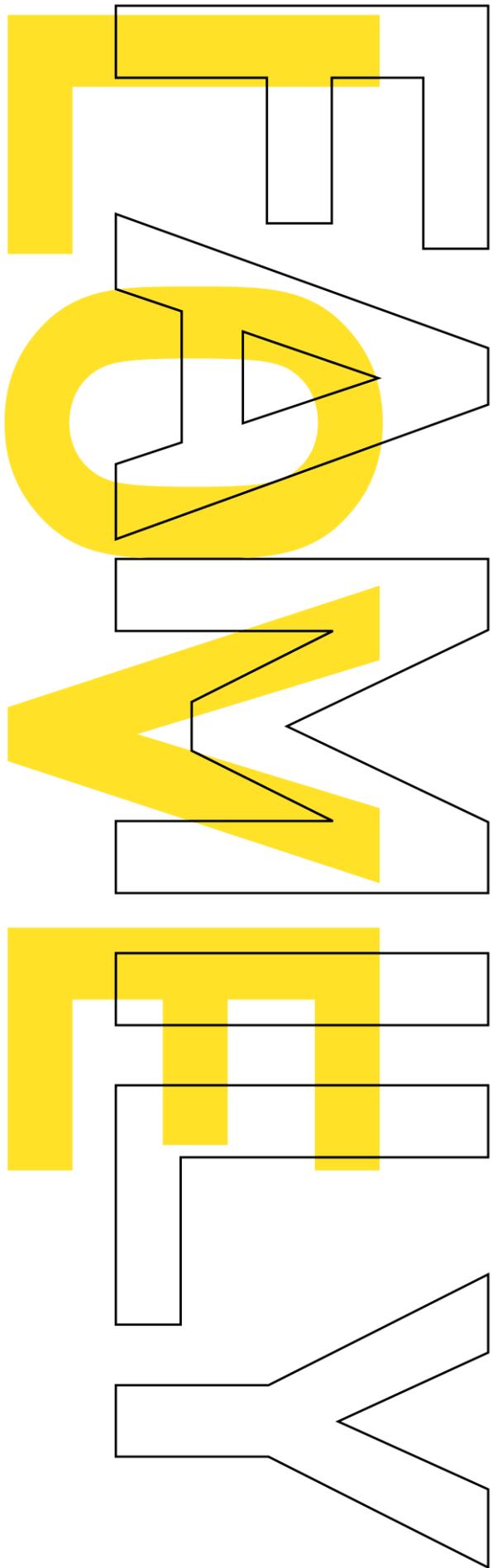
1598년 11월 19일, 전라좌수사겸통제사 이순신이 사망했다.

가토 기요마사가 제독 유정에게 두 번이나 강화를 청하면서 병력을 해산하고 돌아가겠다는 요청을 했다.

유정이 거짓으로 화친을 허락하고 이순신에게 이를 몰래 알렸다. 배를 정비하여 반쯤 건넌을 때 공격하였는데, 왜적이 배에 오르는 것은 다 타지 못했을 때 제독 유정과 이순신이 공격하여 왜선 수백 척을 부딪쳐서 파괴하였다. 왜적들이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진영으로 다시 되돌아가 사천의 적장 심안도에게 힘을 합쳐 수전을 할 것이니, 즉시 달려오라고 하였다. 심안도가 연 배를 타고 앞으로 나오니, 이순신이 좌우로 협격하여 큰 전쟁이 바다 가운데서 벌어졌다. 이순신이 병사들의 앞에 서서 종일 혈전을 펼쳤는데 탄환을 머리에 맞아 전사했다. 아들 아무개가 이순신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감추고 소리를 삼키며 울음이 나오도록 억누르며 말하기를, "내 마땅히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것이며, 이 도적들과 함께 살지 않을 것을 맹세하노라."라고 하고는 깃발을 올리고 북을 치며, 적을 모두 죽일 때까지 싸워 물러서지 않았다. 앞뒤로 부순 적의 배가 거의 400여 척에 이르렀고 도독 진린이 지원해서 왜적을 대파하고 죽여 머리를 벤 것이 많았다. 가토 기요마사는 진린에게 은을 바치고 지름길로 도망쳤다. **ES&C**

-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





만족하는
가정생활,



대화법 먼저 바꿔보자



Communication



Communication



옛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 가정을 돌보고 이후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유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선비의 자세인데 요즘에도 잘 통하는 말이다.

이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편안하게 한 후 직장이나 학교 등 집 밖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정도로 풀이될 것이다.

이 가운데 가정의 중요함은 누구나 알지만 또 이를 간과하기 쉽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집단이다. 이 기초집단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워야 바깥 생활도 만족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면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생활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족 간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각 가정의 사정은 모두 다르니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기는 힘들다. 다만 대화법의 중요함은 모든 가정이 공통적인 사안이니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C o m m u n i c a t i o n



communication together LOVE

가정의 기초 엄마·아빠, 대화법이 화목함에 큰 영향을 준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다. 어떤 이들은 주변의 축복을 받으면서 가정을 세우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어렵게 결혼해 가정을 꾸리곤 한다. 어떤 과정을 거쳤던지 꾸러진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매년 증가하면서 정부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통계적으로 부모가 이혼할 경우 그 자녀들도 이혼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혼한 이들에게 이혼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성격 차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혼 이유에 대해 심리학자나 가정상담전문가 상당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성격이 같은 사람은 결코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가 잘 아는 한 정신과 의사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모두 성격이 다르다. 겁이 많은 고양이, 주인이 혼내도 금방 풀어져 꼬리 흔드는 강아지 등 성격이 제각각이다. 하물며 개나 고양이보다 더 복잡한 사고를 가진 사람의 성격이 같을 수 있겠느냐. 지구상의 인구 77억 명은 모두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성격이 같은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이혼한 사람들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화법'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한 사회학연구소가 이혼한 부부들을 십수 년 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80%가량은 대화법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아냈다. 집이 어지럽혀져 있을 때 배우자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집에서 살고 싶냐?" 또는 "청소도 안 하고 뭐냐?"라는 식으로 말했을 때와 "오늘은 청소를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상냥하게 말했을 때 들는 사람의 기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결혼 후 몇 년 살면 권태기가 뭐다 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소홀해지기 쉽다. 때로는 서먹할 때도 있다. 지금 스스로 나는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화법을 바꿔보자. 어떤 화법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일단 다정다감하게 말해보라.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잘 보이기 위해 예쁘게 말하고 노력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정다감한 화법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괜히 배우자로부터 "오늘 왜 이래? 나한테 뭐 잘 못한 거 있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예쁘게 말하는 사람에게 계속 핀잔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지연 감정전문가는 좋은 부부간의 대화법에 대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비난하지 말자. 특히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 등을 비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서

로의 약점을 건드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며 옳고 그름이란 없다 ▲명령조로 이야기 하지 말고 권유하는 어투로 이야기 하라 ▲듣기 좋은 거짓말은 자주 해도 좋다. "당신은 나이 들어도 멋있어라"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 할 수는 있지만 기분 나빠하지는 않는다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라 등을 권했다.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 대화법에 따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요즘 부모들은 "아들은 초등학교 가면 부모와 말 안 하고, 딸은 중학교 가면 부모와 말 안 해"라는 이야기를 서로 줄곧 한다. 그렇다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와 대화를 잘 안하는 게 당연한 것일까? 결코 아니다. 부모와 자녀 간 대화가 단절된 것처럼 슬픈 현실이 없는데 요즘 부모들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녀와의 대화 단절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듣기 싫은 소리를 자주 하

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주로 자녀에게 하는 말이 "얼른 씻고 자라", "밥 먹어라", "집에서 쿡쿡거리지 마라".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해라"는 말이 주를 이룬다.

자녀에게 "공부는 안하고 또 게임이나? 으 이그 한심해~"라고 말했을 때와 "우리 아들(딸) 게임 잘하는 것 같은데 공부도 잘 하면 더 멋지겠다. 진짜 멋진 사람은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게임이면 게임 뭐든 잘 하거든"이라고 말했을 때 이를 들은 자녀의 반응과 기분은 크게 다를 것이다.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게 단답형 대화이다. "숙제했니?" "응" 이런 대화법은 피하라. 숙제했느냐고 물어보기 전에 오늘 숙제 분량부터 물어보자. 그리고 "숙제가 많네. 그거 다 했어? 힘들었을 텐데..."라고 말했을 때 "응 다 했어. 별거 아니더라고" 또는 "아직 못 했어. 숙제가 너무 많아"라며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다.

특히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녀가 나이가 어리건 많건 하나의 인격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4~5살 어린 아이라고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은 언어라는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순간부터 감정도 함께 움직이게 된다. 말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아이의 성

장에 큰 영향을 준다. 자녀를 이해하는 대화법을 익혀보자. 자녀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가족 간 대화의 시간을 일부러 가져 보자

대화가 부족한 현대의 가정. 일부러 대화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저녁 잠들기 전 또는 각자의 방으로 가기 전에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좋다. 대화의 주제는 상관없다. 각자 돌아가면서 아무런 이야기나 해 보자. 하루에 있었던 일 또는 엄마·아빠·자녀에게 바라는 점, 이번 주말 가족끼리 어딜 놀러 갈까 등등 대화 자체를 시도하자.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화가 아닌 칭찬의 대화를 하고 뭔가를 지적할 때는 직설적인 대화법보다는 완곡한 대화법을 쓰자.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하면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형제, 자매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족 간의 좋은 대화법을 익히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오래 걸릴 뿐이다. EBC





곤충이 사라지고 있다!

“아무르 표범, 보르네오 오랑우탄, 사울라, 양쯔강 돌고래, 자바 코뿔소...”

다정히 이름을 불러 봐도 머지않아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모를 동물의 이름이다.

이들의 근사한 뿔이나 매혹적인 무늬, 귀엽고 이색적인 외모를 탐욕의 대상으로 삼은

인간이 바로 멸종을 가속화한 원인임이 드러나 마음이 무거워진다.

2018년 초, 지구상 단 한 마리 생존하던 수컷 북부흰코뿔소가 사망해 (암컷 두 마리가 남았지만) 사실상 멸종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보도됐다. 이처럼 야생 포유류를 중심으로 한 생물 다양성 보존과 희귀종 및 멸종 위기종의 보호는 환경보호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생태계에는 소수의 인기 동물만큼이나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아주 작다. 수명도 짧은 탓에 정 붙이기도 쉽지 않다. 포유류만큼이나 생김새가 멋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간신히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너무 흔해서 그 중요성을 잊기 쉬운 존재. 그러나 (생물학자 E. O. 윌슨에 따르면)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작은 거인의 이름은 바로 ‘곤충’이다.

가능한 한 가장 평범한 곤충을 떠올려 보자. 촉촉한 흙이건 딱딱한 보도블록 틈새건 조금만 둘러보면 어디서든 찾을 수 있을 법한 개미.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성가시게 달라붙는 이름 모를 날벌레. 밤새 시끄러울 정도로 구애 활동에 헌신하는 각종 풀벌레들. 한여름을 오싹하게 만드는 나방. 웬지 모르게 향수를 자극하는 이 모든 작은 존재들이 조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한 마디로, “40년 전에 비해 곤충 양이 4분의 1로 줄었다.”

곤충의 절멸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최근 미 국립학술원회보(PNAS)에 발표된 연구에서 미국 렌슬러 폴리테크닉대학의 열대 생태학자 브래드 리스터(Brad Lister)는 1970년대와 2010년대 데이터를 비교했다. 그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루킬리오 열대림의 동일 장소에서 포충망으로 포획한 곤충 및 거미의 마른 중량은 약 40년 새 4~8배 감소했고, 바닥의 끈끈이로 포획한 경우 30~60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작은 친구들에 무심했듯, 루킬리오 숲에서 그저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달라진 점을 잘 몰랐을 것이라고 리스터는 말한다. 열대림의 풍경은 언뜻 보면 전과 같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의 시각에서 이 열대림에는 이미 곤충의 감소와 더불어 급격한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관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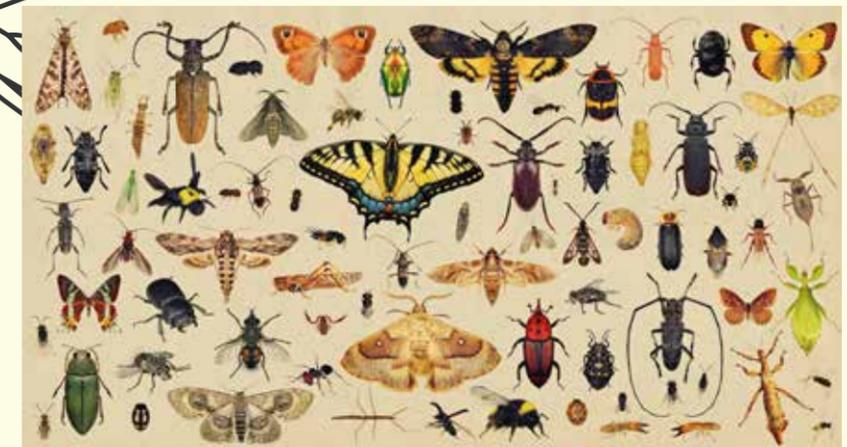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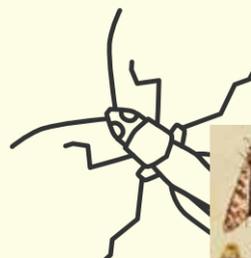


사진 1. 지구를 풍요롭게 하는 수많은 곤충 종들이 점점 멸절하고 있고 그 속도도 빠르다. 곤충의 멸종은 생태계의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출처: shutterstock)

그의 관찰에 따르면 도마뱀, 새, 개구리 같은 곤충 포식자의 수도 곤충 수에 평행선을 그리며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 예컨대 씨앗과 과일을 먹는 불그레한메추라기비둘기(Ruddy Quail Dove)의 경우 개체 수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반면, 곤충만 먹고 사는 벌잡이부채새(Puerto Rican Tody)의 수는 무려 90%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즉 먹이사슬의 하층부가 급감함에 따라 연쇄 작용으로 상층부에서 영양 결핍 현상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산림 식량 그물이 붕괴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리스터의 연구 결과를 들은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지의 많은 무척추동물 연구자들이 그에게 동감을 표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힘들게 한다.

1930년대부터 농약이나 서식지 손실로부터 철저히 보호된 이 자연림에서 이러한 붕괴 현상이 나타난 데에 리스터는 기후변화를 주원인으로 꼽는다. 40년 동안 루킬리오 열대림의 평균최고기온은 약 2.0℃ 상승했다.

곤충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산다

곤충이 사라진 세계를 그리는 시나리오는 무엇이 됐든 비극적이다. 과학자들은 아마겟돈, 지구 종말, 악취와 침묵 같은 단어들을 말한다. 끔찍한 상상은 곤충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더욱 실감 난다.

곤충은 기본적으로 분해에 필수적이다. 즉, 영양분을 순환시키고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며 식물을 성장시켜 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게 만든다. 앞으로 곤충산업의 전망이 좋다는 말

이 무색하게, 곤충은 이미 여러 산업에 걸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령 수십억 종의 벌레들은 매년 식량 작물의 4분의 3에 꽃가루를 나르는데 이는 금전적으로 5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뿐 아니라 한때 호주에서는 소를 들여온 후로 소 배설물을 분해할 딱정벌레를 수입해 방출하기까지 악취에 시달렸어야 했는데, 이것은 따져보면 1년에 약 4000억 원 규모이다.

곤충에 의존해 사는 우리는 그들 없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보인다. 어쩌면 누군가 말했다곤충이 멸절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위태로운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코뿔소가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를 배는 반면 나방은 종에 따라 수천 개의 알을 품는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곤충의 엄청난 번식력이 자연의 탄력성이 발휘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계를 지탱하는 평범한 이들의 번식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들의 공간을 빼앗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다른 한 가지 임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 늘 귀 기울이며 변화를 감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훈련을 받고 나비의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의 포괄적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E&C](#)

- 출처 : KISTI의 과학향기 -



사진 2. 자연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생명들이 제각기 생존하고 번식함으로써 풍부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출처: shutterstock)

Culture

Festival

태안 세계튐립축제 2019

기간 : ~ 5월 12일 장소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400



2019 태안 세계튐립축제는 2018년과는 달리 관람객들에게 많은 포토존을 제공하고 다양한 동선을 조성하였다. 화려한 카페트 모양의 1경, 모나리자와 마릴린먼로의 2경, 판타지영화의 느낌이 드는 3경. 여기에 열대지방을 연상케 하는 아자수 숲속, 물 위에서 펼쳐지는 수상 정원, 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풍차 전망대까지 2019년 4월 13일에 코리아플라워파크에서 펼쳐진다.

www.koreaflowerpark.com

Exhibition

그림책 NOW : 세계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나다

기간 : ~ 7월 7일 장소 : 갤러리아포레 더 서울라이트움 5관

찰나의 순간을 담은 듯한 생생한 그림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이고르 올레니코프(안데르센상)부터, 책장의 경계를 넘어 삶을 통찰하게 하는 '안드레 레트리야(나미쿱쿠르),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서사와 장면이 있는 '루드비히 볼베다(BIB)까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300여 점의 일러스트레이션과 110여 명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www.seouliteum.com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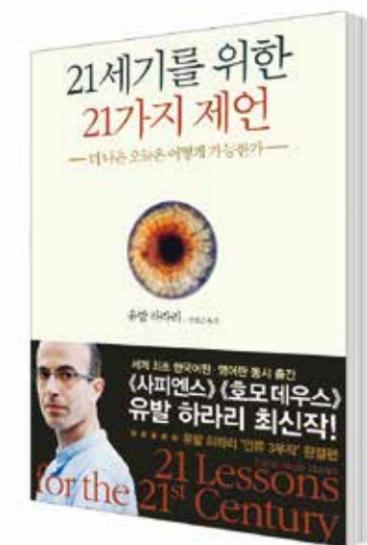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거대한 전환기를 이해하는 최고의 가이드

기रो에 선 21세기의 사피엔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

『사피엔스』에서 과거를, 『호모 데우스』에서 미래를 논한 저자가 이번에는 현재를 이야기한다. 인간은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길까, 민주주의는 실패할까, 환경 파괴에 지구는 안전할까? 파멸이 아닌 번영을 바라다면 유발 하라리의 제언에 주목해 보자. 저자는 이 책에서 신기술이 야기할 모든 영향을 다루지는 않는다. 주로 그것이 초래할 위험과 위협을 조명하고자 한다. 1부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개관하고, 2부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을 폭넓게 살펴본다. 3부에서는 테러리즘의 위협과 전 지구적 전쟁의 위험, 그리고 그런 분쟁을 촉발하는 편견과 증오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분석한다. 4부에서는 탈진실 개념을 살펴보고 어느 정도까지 세계의 전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정의와 잘못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고, 5부에서는 이 혼돈의 시대에 처한 우리의 삶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민족과 종교, 인종주의에 갇혀 반목하고 있는 인류의 오늘은 어떤 내일을 만들어갈 것인지 그 해법을 제시한다.

유발 하라리 저/전병근 역 | 김영사



Movie

바이스

이것은 실화다, 그는 역사상 가장 비밀스러운 권력자였으므로 혹은 실화에 가까운 이야기다.

대기업의 CEO에서 펜타곤 수장을 거쳐 미국 부통령까지 오른 딕 체니(크리스찬 베일), 재임 시절,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그가 내린 결정들은 세계의 흐름을 바꿔 놓았고 뒤바뀐 역사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시기에 묻혀 버렸다. 이제 그가 바꾼 글로벌한 역사의 변곡점들을 추적한다.

상영중



금방 쓰고 돌려줄게

직원간의 금전거래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금전의 차용금지 등

- ① 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무관련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작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직원은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감사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직원간의 금전거래



친한 사이라서 하급직원에게 빌린 건데 그것도 안되나요?

매일 만나는 상사나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히려 인간관계가 악화되어 근무 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직원 간에는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자지급 등에 관계없이 일체 해서는 안됩니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참사랑봉사단



회사는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개최된 '2018년 행복 한마당' 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2018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지역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을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한 김천시의원, 각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사는 김천시 장애인복지관과 결연을 맺고 매년 재가 장애인을 위한 반찬 나눔 행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행복김치 만들기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의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장애인 복지에 도움을 준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회사는 2005년 창단한 공식 사회봉사 조직인 참사랑봉사단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방침이다.



사우 애경사



결혼

- ▶ 품질안전환경처 정상호 부장 자녀 : 2월 23일 아펠가모 반포점
- ▶ ICT솔루션실 김정호 대리 : 2월 23일 아산 호서웨딩프라자
- ▶ 원자력)전기계측기술실 이상현 대리 : 2월 23일 더화이트베일
- ▶ 원자력)전기계측기술실 최재희 대리 : 2월 23일 더화이트베일
- ▶ 원자력)토건환경기술실 김응두 대리 : 2월 23일 임페리얼펠리스호텔
- ▶ 원자력)전기계측기술실 장석훈 사원 : 2월 24일 대구 강북컨벤션웨딩홀
- ▶ 신사업)토건환경기술실 이현미 대리 : 3월 9일 대전 호텔CC
-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남상구 부장 자녀 : 3월 9일 천안 베리웨딩

부음

- ▶ 원자력)토건환경기술실 양승삼 차장 모친상 : 2월 7일 수원 아주대병원
- ▶ 신사업개발처 이창 부장 장모상 : 2월 15일 서울성모병원
- ▶ 원자로)안전해석그룹 이상섭 부장 모친상 : 2월 18일 대전 유성선병원
- ▶ 원자력)사후관리사업그룹 정재훈 부장 부친상 : 2월 22일 창원 마산의료원
- ▶ 원자력)토건환경기술실 윤석근 사원 장인상 : 2월 24일 대한병원
- ▶ 신사업)전기계측기술실 서호진 부장 장모상 : 3월 4일 광주 윤암한국병원
- ▶ 원자력)사업관리기술실 김민철 부장 부친상 : 3월 5일 인천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실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우회 동정

제74차 이사회 개최

한전기술동우회 제74차 이사회가 2월 21일 한기동우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보고 의안으로 제73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가 원안 접수되었다. 또한 이날 의결안건으로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9년차 정기총회 개최(안), 기금 처분(안), 자문위원 위촉의 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신임 자문위원 위촉

- 조지래(前 한기(주) 원자력본부장)
- 김재원(前 한기(주) 에너지신사업본부장)

결혼

- 박원찬 회원 자녀 : 2월 16일 더컨벤션 송파문정
- 신현철 회원 자녀 : 2월 23일 상록아트홀
- 김익범 회원 자녀 : 2월 24일 대전 라도무스 아트센터

부음

- 김병욱 회원 장인상 : 1월 28일 삼육서울병원
- 장우현 회원 모친상 : 2월 5일 한미병원(LA, U.S.A.)
- 노진홍 회원 모친상 : 2월 18일 아주대병원



“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통신 장애 시 배상받기 어려워 ”

– 통신 장애 면책,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등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 필요



해외여행 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저렴한 요금으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3G, 4G(LTE) 등 현지의 이동통신망 신호를 와이파이(Wi-Fi) 신호로 바꿔주는 휴대용 네트워크 장비

‘통신 장애’ 관련 소비자상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15년~’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 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4명 중 1명이 통신 장애를 경험하지만 배상받기 어려워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해외에서 통신 장애로 포켓 와이파이 이용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전체의 27.6%(138명)로 4명 중 1명이 통신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 이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경험이 있는 남녀 소비자 500명 대상

그러나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5개(38.5%) 업체는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

* 글로벌 와이파이, 말톡, 소리샘네트웍스, 스마텔, 스카이패스 로밍, 와그, 와이파이도시락, 와이파이망고, 월드로밍, 유심스토어, 토마토와이파이, 플레이와이파이 등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업체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5개(38.5%) 업체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한 경우 구체적인 기한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2개(15.4%) 업체는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상담 사례

[사례1] 통신 장애에 따른 이용요금 환급 거절

- ▶ 소비자 A씨는 2017년 11월 중국으로 해외출장을 떠나 현지에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던 중, 갑자기 와이파이 연결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함.
- ▶ 무료 와이파이 되는 곳을 찾기 전까지 고객센터에 연락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거래처 미팅이 취소되는 등 업무 일정에 차질을 빚음.
- ▶ 다음 날에도 와이파이 연결되지 않았고, 귀국하여 이용 요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을 거부함.

[사례2]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이용요금 환급 거절

- ▶ 소비자 B씨는 2016년 11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예약했으나, 출국 당일 국내 공항에서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여행을 떠남.
- ▶ 곧바로 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규정상 전액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음.

[사례3] 구성품 불량에 따른 이용요금 환급 거절

- ▶ 소비자 C씨는 2017년 10월 대만 여행 중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작동한 지 10분 만에 단말기의 전원이 꺼졌고, 충전을 해도 작동하지 않았음.
- ▶ 여행 기간 내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못해 업체에 이용 요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함.

[사례4] 파손된 단말기 손해액 과다 청구

- ▶ 소비자 D씨는 2017년 2월 일본에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던 중 단말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파손함.
- ▶ 업체에 파손 사실을 알리자, 업체에서는 파손 손해액 규정이 없으니 이용약관에 있는 분실 손해액 15만원을 내라고 함.
- ▶ 업체에 파손과 분실 손해액이 동일한 이유를 묻자 답변을 회피함. **E&C**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볼펜

Writer 박진우 원자력기술그룹 과장

오래간만에 책상을 뒤엎는 순간
 어디에 숨어있었는지
 여기저기 볼펜들이 우루루 쏟아져 나온다.
 모자를 잃어 버려 짝을 찾고 있는 놈
 허영계 뱃속이 텅 비어 버린 놈
 목말라 헛바닥이 한여름 논바닥처럼 툭하고 말라버린 놈
 주인이 찾지 않는 길 잃은 볼펜에서
 마냥 내일을 기다리는 내 모습이
 담벼락 뒤에 희미하게 숨어 있다.

노란색으로 오는 봄

많은 사람들에게 봄의 색을 물어 보았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봄 색은 어떤 색인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봄의 많은 색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언급한 색으로 노란색을 꼽습니다
 노란색인 이유는 개나리, 산수유, 민들레, 꽃다지 등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색이기 때문이죠
 놀라운 사실은 겨울을 열다시피 지낸 곤충들이 가장
 잘 볼 수 있고 구분하는 색이 노란색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은 추운 겨울을 지낸 곤충이 봄에 잘 볼 수 있도록
 노란 꽃을 만들어 찾아오게 하여 꿀을 주는 것이지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는 색도 한몫을 하는 것이지요

글 · 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부장